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에 대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제작되고 유통되며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저연령층,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호 및 대응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신속한 신고나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개최하고 피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교육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